지역사찰도 나눔정신 발현, '행복바라미' 동참

직할교구신도회, 11월 20일 호압사서 행복바라미 축전

호압사 국수나눔행사와 연계
전통문화공연, 나눔 함께 해
현민 스님 "봉사자들에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최상원)가 11월 20일 서울 호압사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 직할교구 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올해 영광, 구미 등 불교초전법륜지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지역문화제는 서울 권역에서 마련된 행사로 지역 불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호압사에서 십수년간 진행 중인 국수나눔 행사와 연계해 펼쳐져 일반대중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을 비롯해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 성불사 경보 스님, 공덕암 일광 스님 등 지역사찰 스님들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 이금석 직할교구 명예회장, 양인효 연화사 신도회장, 이동복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등 사찰 신도회에서도 대거 참여했다.

이날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과 경기지역 행복바라미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개회사, 축사, 모금퍼포먼스, 전통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상원 신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전통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행복바라미 대축전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올해 지역문화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고립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희망의 한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행복바라미처럼 호압사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바라미 문화축제가 우리 모두가 치유와 위로를 받는 뜻깊은 의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은 "호압사의 국수보시를 위해 아침부터 고생한 신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일간 노력한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누군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법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불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주요참석 내빈들의 모금 퍼포먼스와 전통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1회차부터 행정안전부 승인 하에 모금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직할교구 지역문화제에 참가한 내빈들이 모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4050 사찰로 이끄는 신도회로"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



직할교구신도회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열린 호압사는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이 호압사 신도회장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일선사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행사가 많다"며 "신도들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발심할 때 일이 이뤄지는데, 신도들의 응집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할교구 지역문화제는 호압사가 10여년간 진행해온 국수나눔행사와 연계돼 눈길을 끌었다.

최 신도회장은 "직할교구가 자선골프대회, 일일 찻집 및 바자회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나눔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 직할교구 내 사찰들과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신도회장은 "4050세대가 불교계 중심으로 자리잡고 수행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들을 사찰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연예인 원력 모아…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

11월 22일 조계사서 출범,
6개 분과 177명 이름 올려
전법단 대표 배우 임혁 씨
자광 스님, 범해 스님 등
불교계 격려·응원 이어져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식에서 참석한 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불자연예인들의 구심체인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탄탄, 서울 적조사 주지)이 11월 22일 조계사에서 출범했다. 이날 모인 불자연예인을 비롯한 100여 대중들은 불교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원력을 세운 불자연예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출범식에는 원로의원 자광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연예인전법단 대표를 맡은 배우 임혁 씨는 "연말연시 수많은 시상식에서 이웃종교인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부처님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소극적 자세일 수 밖에 없었다"며 "자리이타 정신으로 과감하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웃고 울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자"고 말했다.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이들에게 "다른 종교 가르침과 달리 불교는 우리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얘기 한다. 그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한다"며 "즐겁고 기쁠 때 외에도 힘들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활동할 수 있는 불자연예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법단 창설을 이끈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은 불교 홍법포교와 불교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처님 자비정신을 구현, 세상을 복되게 하자"고 당부했다.

초대 단장을 맡은 탄탄 스님은 "많은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연예인전법단이 비록 여러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전법단은 방송, 연기, 연극 등 6개 분과 177명으로 구성됐으며, 연예인전법단을 후원하기 위해 김상훈 前 봉은사 신도회장을 대표로 60명의 재가자로 구성된 전법후원단도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경성 대율사 전등율맥 전수법회

문광 · 법진 · 일휴 · 수미 · 법진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첩 · 죽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대율사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3일 보경당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혜안 문광 · 덕안 일휴 · 등각 수미 · 명철 법진 · 덕우 법진 스님 등이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대율사로부터 전등율맥을 전수받았다.

조계종 전계사 무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성도 후 승가의 형성은 계율에 의해 기본이 성립되게 됐다. 우바리 존자의 계율 암송으로 율장이 갖추어지고 중국 도선 율사에 의해 사분율 중심의 계단과 전계가 이루어졌다"며 "면면히 이어온 율종은 1980년 법난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을 자운 성우 대율사께서 설립하시고 율맥을 전수하여 무봉 성우 스님을 이어 지엄 경성 스님께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지엄 경성 스님께 전계를 받게 된 스님들께 감축 드리고 한국불교의 계단을 정립해 오신 자운 성우 대율사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더욱 여법 여율한 계율이 종단에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청정한 계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계제자를 대표해 문광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연과 각오를 굳게 새겨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계행을 세상에 펼치고, 세상을 청정하게 맑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스님은 5명의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첩과 죽비, 발우를 전달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바다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미량의 염분 때문이다"며 "혼돈과 전쟁과 분열의 사바세계 안에서 3.5%의 염도 역할을 바로 청정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출가 수행자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스님과 전계제자스님이 법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 · KCC글라스 손잡고 집수리봉사

11월 21일, 재단 임원실에서 MOU친
환경 바닥재 지원 · 가정용 가구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KCC글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KCC글라스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속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1월 21일 서울 전법회관 6층 재단 임원실에서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사업' 후원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집수리봉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집수리봉사팀 10여 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KCC글라스는 2020년 5월, '따뜻한 공간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집수리봉사에 필요한 친환경 배닥재를 매월 5롤씩 1년간 후원해왔다. 코로나19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에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KCC글라스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집수리봉사에서 친환경 바닥재 지원과 더불어 가정용 가구 및 사회공헌 전반의 후원을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과 MOU 체결

불교대학 · 불교문화硏과 협약… 불교 분야 학술교류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장, 라빈드라 쿠마르 싱 GBU 총장 및 GBU 비슈와스 트리파티 기획부총장이 협약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이 불교학 교류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8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Gautam Buddha University, 이하 GBU)을 방문해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문화연구원과 GBU가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과 연구 논문 교환 △프로젝트, 인턴십, 박사학위, 불교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고급 연구 등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교류를 다양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은 "이번 합의가 두 불교학 기관 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도, 한국, 대승불교 분야에서 일하는 교수진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불교활동가에 이종만 대표 등 5인

설법연구원, 11월 30일 지원
우연 스님 · 조정숙 국장 등

찬불가 포교를 이끌어온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 등 5명이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불교의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제19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이주민 지원 활동과 찬불가를 통한 문화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온 5명의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 씨는 수십장의 찬불가와 찬불동요를 발표하고 산사음악회를 기획해왔다. 25년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불가를 통한 문화 포교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계사 부설 이주민쉼터 활동가 우연 스님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2010년 한국에와 수행생활을 하며 화엄사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에 입학한 2017년부터 여러 봉사를 이어오며 이주민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센터 운영자 진우 스님 또한 14년간 센터를 통해 국내 캄보디아 불자들을 위한 법회와 법률상담, 이주민쉼터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국민이 불심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자인 즈엉바오칸 씨도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